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중형 조선업계 공공부문 선박 30척 수주 수혜

국내 중형 조선업계가 공공부문에서 총 30척의 수주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COVID-19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해 자동차부품 산업에 5,000억원 규모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겠다고 하며 국내 중형 조선업계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함. (선박뉴스)

현대미포조선, 중형 LPG선 3척 수주

전일 보도된 현대미포조선의 LPG선 3척 수주 건에 대한 계약금액이 공시됨. 현대미포조선은 공시를 통해 LPG선 3척의 수주계약금액이 1,950억원이라고 밝힘. Clarkson에 따르면 전세계 LPG 해상 수송량은 2019년 1.04억톤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1.1억톤으로 약 6%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Mozambique on road to 90 million tonnes per annum of LNG output by 2032

모잠비크가 2032년까지 LNG 생산설비를 90MTPA(Million Tonnes Per Annum)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2022년 Eni의 Coral floating LNG 프로젝트가 정상 진행되고, Total이 주도하는 LNG프로젝트가 2024년부터 LNG화물을 수출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까지 생산규모가 31MTPA까지 확장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대한조선 LR2 5천만달러 미만

대한조선이 그리스 Neda Maritime Agency로부터 수주한 115,200DWT급 LR2 탱커의 선가가 5,000만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됨. 대한조선의 오더북은 Neda의 LR2탱커를 포함하여 20척이며 현재 NS Lemos와 Angelicoussis Group의 수에즈막스급 탱커를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LIG넥스원, 2000억 증액 발행...CP도 갚는다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2400억원의 주문을 모은 LIG넥스원이 발행액을 2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추가로 확보한 500억원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을 갚는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LIG넥스원은 조달한 2000억원 중 1500억원을 다음달 9일 만기가 돌아오는 4회차 3년물을 상환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더벨)

LNG선 수주 스타트...조선업계 하반기 청신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1일 올해 첫 LNG선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하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LNG운반선 수주가 본격화될 조짐이라고 보도됨.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는 지난해보다 3~4개월가량 늦춰졌으나 카타르와 러시아 등이 올해 LNG선 대량 발주를 예고한 만큼 하반기 수주 전망은 밝다고 보도됨. (이뉴스투데이)